

전주시 동네서점 지속 성장 눈길

전국적 서점 폐업 추세 속 ‘책콩20’ 등 혁신 정책으로 동네서점 활성화 성공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서점의 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는 오히려 동네서점이 꾸준히 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 기준 76곳이었던 지역서점이 올해 현재 95곳으로 늘어나 약 25%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전주지역에는 자체적으로 문화 행사를 운영하거나 다양한 개성을 가진 동네책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동네책방은 지난 2021년 10곳에서 올해 현재 19곳으로 90% 늘어났다.

이러한 반전은 시가 동네책방을 단순한 ‘책’을 파는 가게가 아닌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재해석한 결과물로 평가 받고 있다.

그 결과 도서관 이용과 서점 방문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으며 책을 읽고 서점을 찾는 새로운 독서 흐름이 만들어졌다.

그 중심에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제도가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권당 50포인트가 적립되고, 동네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도서 정가의 20% 할인과 함께 대출로 적립된 포인트를 도서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책콩20’ 서비스에 가입한 시민은 약 3만3500명으로, 이들이 구매한 도서는 총 54만5000권에 달한다.

책콩20을 통해 올해만 약 22억5000만원 규모의 도서가 지역서점을 통해 판

매되면서 시민의 독서 참여 확대는 물론, 지역서점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시가 운영하는 ‘전주도서관여행’ 코스에도 동네책방들이 포함돼 시민과 책 여행자들은 ‘도서관해설사’와 함께 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을 둘러보며 책을 통해 도시를 ‘읽는 여행’을 즐기고 있다.

동네서점인 ‘청동북카페’ 대표는 “손님들이 책방 곳곳에 비치된 책 소개 메모를 읽고 책을 고른 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바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점에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청동북카페 외에도 △‘잘 익은 언어들’(인후동): 책방지기가 직접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선별하고 선보이는 큐

레이션 △‘책방 토닥토닥’(전동): 인권·독립출판물을 중심으로 활발한 독서모임과 문화행사를 이어가며 남부시장 청년몰의 명소 △‘프롬투’(중양동): 지도와 여행을 주제로 동네책방, 방문자가 직접 작성한 ‘장소 기록카드’ 전시 운영 등 각 서점이 독특한 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가 동네서점이 지속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결과물로 분석하고,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책과 문화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남비 전주시 도서관정책생각본부장은 “전주 동네서점의 성장은 지역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국민이 도서관과 동네책방, 북카페 등 책과 문화를 누리는 도시로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 북부권 교통안전쉼터 조성

호남제일문 간이정류장 인근에 휴식 공간·공공화장실 신설

전주 북부권 호남제일문 인근 시외·고속버스 간이정류장 인근에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안락한 쉼터가 마련됐다.

전주시는 호남제일문 인근 시외·고속 버스 간이정류장 인근(덕진구 여의동 1187-1번지)에 ‘북부권 교통안전쉼터’를 조성하고 오는 7일부터 운수 종사자와 시민들을 위해 개방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당 지역에 별도의 공공화장실이 없어 택시 운수종사자와 시외·고속버스 이용객들이 장시간 대기 중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노상 방뇨 등 위생 관련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새로 조성된 북부권 교통안전쉼터는 총 50㎡ 규모(쉼터 16㎡, 화장실 32㎡)로, 운수종사자 휴게공간과 남녀 화장실, 테이블, 정수기, 냉·난방기, 도서, 휴대폰 충전기,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출입관리시스템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쉼터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



로시간을 고려해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개방되며, 공공화장실은 연중 24시간 개방된다.

시는 이 공간을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2500여 명의 시외·고속 버스 승하차 이용객, 전주월드컵경기장 방문객, 인근 지역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편의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북부권 교통안전쉼터는 장시간 도심 곳곳을 누비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자, 대중교통 이용객과 시민 모두에게 열린 편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과 시민 편의를 함께 고려한 생활SOC 사업을 지속 확대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페스타 25만명 함께 즐겼다

독서대전·비빔밥축제·막걸리축제 등 방문객 문전성시 이뤄

전주시 대표 통합축제인 ‘전주페스타 2025’에 총 2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시는 가을철 전주 곳곳에서 개최되는 5개 주요 축제를 하나로 묶은 통합축제로 펼쳐진 ‘전주페스타 2025’에 지난 9월 열린 2025 전주독서대전부터 지난 1일 폐막한 전주막걸리축제에 이르기까지 두 달 동안 총 25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문화관 일원에서 ‘넘기는 순간’을 주제로 펼쳐진 ‘제8회 전주독서대전’에는 총 6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8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돼 3일간 총 4만5000여 명이 방문하며 대한민국 대표 독서출판문화축

제의 명성을 이어갔다.

이어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된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은 ‘이것이 한지다’라는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전주 천년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지 산업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축제로 꾸며졌다.

또 국제한지패션쇼와 일본 가나자와 공예인들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돼 전주한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전주예술난장이 미래문화축제와 개최됐다.

이 축제에서는 ‘뛰어! 전주, 울려! 난장’을 슬로건으로 총 31개의 거리에



전주시 대표 통합축제인 ‘전주페스타 2025’에 총 2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솔송연팀이 참여해 이색적인 공연을 펼쳤고, 예술놀이터 등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들 통해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전주 대표 음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가 전주페스타 축하행사 ‘함께가을’과 함께 펼쳐지며 올해 ‘전주페스타 2025’가 절정에 달했다.

전주비빔밥축제 행사장에서는 총 21

개의 음식부스가 방문객들의 먹거리를 책임졌으며, 올림픽 체험존과 쿠키킹 체험, 지역문화예술인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운영됐다.

특히 전주비빔밥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대형비빔 퍼포먼스는 전주올림픽 유치 기원을 담아 ‘브리튼즈 갓 탈런드’ 골든부처로 이름을 알린 전주대학교 태권도 공연과 함께 산청을 통해 모집한 시민 참여로 그 의미를 더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탄생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새롭게 탄생했다.

시는 최근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브랜드 통합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중 유일하게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의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옥의 품격과 전주 농가의 정성,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사랑을 담은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전주한옥애뜰’을 보유하게 됐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위촉된 위원들과 전주시 관계자, 전주시의회 의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담당기관 등 각 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인 운영과 사용 관리, 홍보 활성화를 위한 심의·자문 기구인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가졌

다.

시는 공동브랜드가 단순한 상표등록이 아닌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한 품질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포장과 유통까지 통합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 제법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의 신호를 주는 제도인 만큼 내년부터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농산물 출시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출시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노력 첫 결실

지역 전문건설업체, 공동주택 신축공사 참여 확정

전주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정되는 첫 번째 결실을 맺게 됐다.

시는 지역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꾸준히 공사 현장과 건설사 본사를 방문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지역업체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참여가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실제로 라온건설(주)(대표 손효영)은 전주시 평화동에서 추진 중인 50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전주 지역 우수건설업체를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사로 선정했다.

이번 공사는 지상 29층, 7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단지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모악산 뷰를 갖추고 성환리에 분양이 진행 중이다.

라온건설은 지난 9월 30일 전주시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와의 MOU 체결 당시 약속한 ‘지역업체 우선 참여 확대 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주요 공종에 지역업체를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은 협약 이후 실질적인 첫 성과물

이로, 이 공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약 40~50%를 차지하는 만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MOU의 실효성을 입증한 만큼, 향후 전주 지역업체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높여 민간 건설사업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온건설(주) 관계자는 “전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업체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상생의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은 전주시와 라온건설(주)이 함께 추진한 상생협력의 첫 결실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